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의 의미와 역할에 관한 연구*

김명훈**

1. 머리말
2. 기록학과 구술, 구술기록
3. 기록학에서의 구술 쟁점
4. 기록학과 구술 필요성
 - 1) 구술과 기록 그리고 맥락
 - 2) 구술과 기록 그리고 평가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09-KC-1001).

**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한국 구술사연구단 전임연구원
주요논저 : 「전자기록 평가론」,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 총서1, 진리탐구, 서울, 2009;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2009;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능평가 프로세스 분석」, 「정보관리연구」 39(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 「매뉴스크립트 평가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국문초록]

최근 녹음 및 녹화기술의 진전은 문자화된 기록만이 아닌 음성이나 영상 역시 행위의 증거 및 기억의 보존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향에 보조를 맞추어 기록학 영역에서는 기록으로서의 구술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술채록 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보존기관에서의 구술채록은 아직 정체성 정립이 요원한 실정이다.

기록학은 현재의 삶의 모습을 기록을 통해 미래에 전승하는 과업을 모토로 한다는 점에서, 구술채록 역시 여타 학문분야에서 사료의 생성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구술채록과는 다른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학은 수많은 기록 중 맥락을 지닌 행위의 증거를 평가하여 현재의 사회상 및 집단 기억을 형성시키는 분야라는 점에서, 구술채록에 앞서 기록학 고유의 구술 정체성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록학에서는 그동안 실증주의의 뿌리 깊은 영향 속에 문자화된 기록 위주로 학문적 이론 및 방법론을 개발시켜왔다. 하지만 ‘말’을 통한 기록의 생성 및 보존이 가능해진 지금, 기억 및 사회상을 보존해 전승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구술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보존기관에서의 구술채록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 및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주제어: 구술기록, 구술사, 기록, 기록관리, 맥락, 평가

1. 머리말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록을 남기는 방식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동안 주로 문자를 통해 기록을 생성시켰다면, 음성과 영상 역시 손쉽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인류의 역사상 말과 글 양자는 의사소통의 보편적이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말을 녹음해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의 부재로 인해 그동안 문자로 작성된 기록을 위주로 행위에 대한 증거이자 기억의 보존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녹음 및 녹화기술의 진전은 그동안 문자화된 기존의 기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음성이나 영상을 행위의 증거 및 기억의 보존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경향과 보조를 맞추어 구술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수행방식 및 채록 목적은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문자화된 기록이 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실제 경험자의 기억을 음성 및 영상으로 채록하여 학문연구를 위한 자료를 생성시킨다는 취지에서이다.¹⁾ 최근 들어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도 기록으로서의 구술이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술채록 사업을 개시하였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사료관 등의 기록보존기관에서 주로 ‘결락기록의 보완’이라는 명목 하에 구술채록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록보존기관에서의 구술채록은 아직 정체성 정립이 요원하다. 구술채록은 부족한 기록을 보충하거나 결락된

1) 국내외 관련 기관에서 수행된 구술채록 사업에 대한 전반적 소개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 『구술기록물 종합관리체계 구축 방안 및 구술채록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가기록원, 2007, pp. 5~86을 참조.

기록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구술채록 분야에 대한 전체적 구조나 수집 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채록된 구술 결과물 역시 단순 시청각기록 중 하나로만 간주되어, 구술기록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및 보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학은 ‘현재의 삶의 모습을 기록을 통해 미래에 전승하는 과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구술채록 역시 여타 학문분야에서 사료의 생성 및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구술채록과는 다른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학은 ‘수많은 기록 중 맥락을 지닌 행위의 증거를 평가하여 현재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키는 분야라는 점에서, 구술채록에 앞서 기록학 고유의 구술 정체성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록학에서는 그동안 실증주의의 뿌리 깊은 영향 속에 문자화된 기록 위주로 학문적 이론 및 방법론을 개발시켜왔다. 하지만 ‘말’을 통한 기록의 생성 및 보존이 가능해진 지금, 기억 및 사회상을 보존해 전승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구술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보존기관에서의 구술채록 정체성을 정립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 및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외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이 지닌 기록학적 의미와 역할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주로 역사학의 사회사 연구 경향에 보조를 맞추어 진행된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구술 도입의 필요성이나 구술채록 방식 및 유의사항, 채록상의 기술적 문제점, 실제 구술채록 사례들을 소개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룬다.²⁾ 기록보존기관에서의 구술의 역할이나 구술의 방

2) 이에 대한 연구성과로는 Gould Colman, “Oral History-An Appeal for More Systematic Procedures”, *American Archivist* 28(January), 1965; William Moss, “Oral History: An Appreciation”, *American Archivist* 40(October), 1977; Thomas Carleton, “Videotaped Oral Histories: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Archivist* 47(Summer),

향성을 제시한 연구성과들도 있지만, 이들은 기록학적 관점에서
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 및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는 선
언적 주장에 그치고 있다.³⁾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는 구술의 수
집방식이나 관리·기술·활용 및 서비스 등 관리 방법론 측면에 한
정해 연구가 집중되고 있을 뿐⁴⁾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 정
체성 정립을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 정체성을 정립시키
기 위한 일환으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와 역
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록학과 구술 간의 관
계를 살핀 후 ‘구술기록’의 개념 정의를 시도해 보았으며, 3장에

1984; Graham Eeles & Jill Kinnear, “Archivists and Oral Historians: Friends, Strangers, or Enemi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9(4), 1988; Bruce H. Bruemmer, “Access to Oral History: A National Agenda”, *American Archivist* 54(Fall), 1991; Shauna McRanor, “Maintaining the Reliability of Aboriginal Oral Records and Their Material Manifestations: Implications for Archival Practice”, *Archivaria* 43, 1997; Ellen Scheinberg, “In Their Own Words”, *Archivaria* 49, 2000; Lisa Klopfer, “Oral History and Archives in the New South Africa: Methodological Issues”, *Archivaria* 52, 2001; John F. Leslie, “The Importance of Oral and Extrinsic Historical Evidence in Understanding Indian Treaties”, *Archivaria* 53, 2002; Robert C. Fisher, “The Grandmother’s Story’: Oral Tradition, Family Memory, and a Mysterious Manuscript”, *Archivaria* 57, 2004 등을 참조.

- 3) 이러한 연구성과로는 Donald Swain, “Problems for Practitioners of Oral History”, *American Archivist* 28(January), 1965; Saul Benison, “Reflections on Oral History”, *American Archivist* 28(January), 1965; Ronald Filippelli, “Oral History and Archives”, *American Archivist* 39(October), 1976; James Fogerty, “Filling the Gap: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American Archivist* 46(Spring), 1983;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H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Ellen D. Swain,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Its Documentary Ro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Archivist* 66(Spring/Summer), 2003 등을 참조.
- 4)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에 관한 연구동향에 대해서는 조용성, 「구술기록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의 면담조사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의 <선행연구> 부분에 그동안의 연구성과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서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의 제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구술을 둘러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기록학의 ‘맥락’ 논점 및 ‘평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였다. 기록학은 수많은 기록 중 맥락을 지닌 행위의 증거를 평가하여 현재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키는 과업임을 감안할 때, 이 두 분야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이 지닌 의미와 역할을 가장 명료하게 밝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고는 기록학에서의 구술 정체성 정립을 위한 시론적 논의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 및 역할 정립을 위한 보다 많은 논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2. 기록학과 구술, 구술기록

구술의 역사는 인류가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자의 발명 이전부터 인간은 본능적인 기억의 필요를 위해 구술을 기억의 도구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문자화된 기록에 토대를 둔 실증주의 영향 하에 이러한 기억의 도구로서 구술의 중요성이 반감되어 왔지만, 20세기 이후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않은 기억을 채록해 연구하는 구술사(Oral History)란 명칭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 현재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구술사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과거의 특정 사건 내지 사실내역을 구술자의 기억을 통해 채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을 공통분모로 한다. 넓

은 의미에서 구술사는 과거의 기억을 말로 회상한 것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는 역사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문헌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악이 가능하다.⁵⁾ 우리나라에서도 구술사는 구술을 기반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지만, 실제 구술사 연구에서는 역사 쓰기 보다는 구술 채록이 보다 빈번히 수행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구술사란 개념에는 역사연구 개념과 함께 구술채록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⁶⁾

개인의 경험을 구술로 채록해 연구하는 구술사의 보편화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관치 않다.⁷⁾ 근대시기까지 인간의 경험이나 기억은 종이 매체에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으로 남겨졌다면, 20세기 이후 녹음 및 녹화기술의 발전은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음성이나 영상으로 남길 수 있기 해주었다. 그러나 개인의 기억을 음성 내지 영상으로 채록하는 구술사 방법론에는 필연적으로 비판이 수반된다. 먼저 개인의 기억이 지닌 정확성 및 신뢰도 문제이다. 개인이 지닌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실되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으며, 개인의 지식이나 경험, 성향 등에 따라 기억이 왜곡되거나 굴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뢰도란 한번 조사한 것을 반복해 조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할 때, 구술 채록에서 신뢰도를 완벽하게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구술사 방법론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것은 말과 기억의 주관성 문제라 할 수 있다. 구술은 구술자 개인의 주관적 경험 및 기억을 토대로 말을

5)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서울, 2005, p. 18.

6)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서울, 2006, pp. 49~50.

7) Thomas Carleton, "Videotaped Oral Histories: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Archivist* 47(Summer), 1984, pp. 229~230.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상 주관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기 어려우며,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속성에 제일 큰 장애로 떠오르게 된다.⁸⁾

이러한 구술사 방법론이 지닌 비판에 대한 반론 역시 존재한다. 실제 인간의 경험을 다루는 구술사는 불가피하게 각 개인의 주관적이면서도 부분적인 경험에 의존하게 되지만, 이는 역으로 기존의 구조중심적 역사학에서 배제하거나 단순화한 실제 인간들의 생생한 경험과 인식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술은 과거에 대한 부분적 진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과거의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경험하고 인식했는가도 담겨 있다. 따라서 구술사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적극적으로 담아냄으로써 그 강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술은 주관적일수록 가치가 있다는 역설의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⁹⁾ 또한 구술사의 의미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을 통해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개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술이 지닌 역사적 사실의 다성성(multi-vocality)은 구술이 지닌 진정한 의미라 할 수 있다.¹⁰⁾

근대 이후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근대 서구의 기록학 담론에서 기록의 한 유형으로서 구술은 주목받지 못하였다.¹¹⁾ 구술은 문자를 대신해 인간의 경험이나 기

8) 김귀옥, 「구술사 연구현황과 구술사 아카이브즈의 구축」,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한국기록학회, 2005, pp. 145~147.

9)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58, 역사비평사, 2002, pp. 366~367.

10) 윤택림,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구술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6, 2001, p. 232.

역을 맡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 및 사고를 반영한 기록화 된 흔적이라 할 수 있지만,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해 성장해 온 근대 기록학의 조류 속에서 구술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왔다.

20세기 이후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문자화된 기록이 지닌 한계와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 및 역사 연구동향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녹음 및 녹화 기술의 보급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음성 녹음 및 영상 녹화라는 기록화 방식을 가능케 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기록학 영역에서도 구술채록이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¹²⁾ 사회사 연구동향 역시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을 주목하게 한 동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구술사가 태동한 미국에서의 경험이 잘 대변해준다. 1970년대의 사회사 연구 사조와 맞물려 ‘밑으로부터의 역사’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구술사가 성행하게 되었고, 기록학 영역에서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 내지 인물 기록의 결락 보완을 위한 차원에서 구술을 수행하게 되었다.¹³⁾

이를 계기로 미국 SAA 산하의 구술사위원회(Oral History Committee)에서는 구술을 또 하나의 기록으로 간주하고,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 자리매김을 위한 아젠더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1971년 SAA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

11) Sue McKemmish, “Traces: Document, Record, Archive, Archive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 18.

12)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H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 152.

13) Ellen D. Swain,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Its Documentary Ro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Archivist* 66(Spring/Summer), 2003, pp. 140~141.

된 조사에 따르면, 회원의 약 20%는 구술채록 및 수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술채록 사업의 70% 이상이 1966년 이후에 마련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회원 가운데 73%는 구술이 기록관리 상의 정식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적절한 재원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대답하였다.¹⁴⁾

1980년대 들어 위와 같은 방향은 부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계기는 Paul Thompson의 *The Voice of the Past* 출간을 계기로 역사학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주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즉 각종 연구기금 지원에 힘입어 역사학자들은 소외되고 잊혀진 소수자들에 대한 역사연구에 주목하게 되고, 기록이 부재한 여성·소수인종·하층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료 확보 차원에서 구술이 진행되게 된다. 기록학 영역 역시 이러한 조류에 동참해, 기록이 거의 없거나 존재치 않는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기록 확보 목적으로 구술을 수행하였고, 구술사협회 및 역사협회에서는 구술의 관리 및 보존 차원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⁵⁾

하지만 1990년대 들어와서는 다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 SAA 소속 아키비스트를 제외한 대부분 아키비스트들은 구술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위와 같은 동향이 줄어들고 일부가 음성기록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진행된 구술사의 대중화·보편화 속에,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은 연구가 더욱 더 저조해졌다.¹⁶⁾

14) Committee on Oral History of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Oral History and Archivists: Some Questions to Ask", *American Archivist* 36(July), 1973, pp. 361~365.

15) Ellen D. Swain,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Its Documentary Ro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Archivist* 66(Spring/Summer), 2003, pp. 141~142.

16) Ellen D. Swain,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Its Documentary Role in the

전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기록에 대한 개념 및 위상은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구술사 영역에서는 구술사료 내지 구술자료란 명칭으로 ‘구술자 또는 화자가 연구자 내지 해석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억을 통해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으로 얻은 자료’로 정의¹⁷⁾하거나, ‘연구를 위한 심층면접(Interview)을 통해 얻은 자료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억이나 개인적인 회고 등을 통해 수집한 결과물’로 지칭¹⁸⁾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록학 영역에서는 구술기록을 ‘면담을 통해 개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과거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정의 내리면서, 면담자와 구술자의 공동작업을 통해 생산되며, 주관성과 개인성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정의는 구술사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의에 ‘기록’이란 단어를 추가하여 치환한 것으로, 기록학 영역 고유의 학문적 실무적 특성을 투영한 구술기록을 정의 내리기에 다소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 채록이 지닌 의미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록학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구술기록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켜야 한다. 구술사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구술채록 결과물로서의 구술사료 내지 구술자료 개념은 역사 및 기타 학문연구를 위한 의미가 강하다. 즉 특정 사건 및 경험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통해 과거의 사실을 복원한다는 뜻으로, 구술사의 출발부터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록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Archivist* 66(Spring/Summer), 2003, p. 143.

17)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서울, 2006, p. 48.

18)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 방법과 사례』, 선인, 서울, 2005, p. 20.

19) 한국기록학회,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서울, 2008, p. 32.

학적 관점에서의 구술기록 개념 역시 이러한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왜냐하면 기록은 과거의 행위내역에 대한 사실적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구술기록의 정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록학 영역이 지닌 고유의 구술 채록 의미 및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록학에서 기록은 형태나 유형에 관계없이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보적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를 기반으로 기록학 영역에서는 ‘현재의 모습을 기록을 통해 남기는 과업’을 수행해왔다. 따라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기록은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개념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해 기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 및 정보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당대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기록을 통해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기록은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않는 영역에 대한 기록 생성 및 현재 보유 중인 기록의 결락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와 함께, 기록 속의 보다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하며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형성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3. 기록학에서의 구술 쟁점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채록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녹음기나 영상촬영기를 들고 구술자의 목소리이나 모습을 채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간 서구 기록학계

에서는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진행되어왔다. 대표적인 쟁점은 구술채록이 기록보존기관에서 수행할 업무인가 또한 구술을 채록한다는 것은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 엄금해왔던 기록 생산 영역이 아닌가 등과 관련해서이다.²⁰⁾

적극적인 구술채록 참여에 대한 기록학 영역에서의 반대 입장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반론은 먼저 문자화된 기록 중심의 오랜 기록관리 관행과 관련된다. 19세기 이후 관료제에 기반을 둔 조직 운영이 일반화됨에 따라 공문서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과 연동하여 현대 기록학 이론 및 방법론은 종이 내지 전자적 형태의 문자화된 기록을 중심으로 개발되어왔다. 매일 매일의 일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양으로 생산되는 문자화된 기록을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이론체계 및 과학적인 관리 방법론이 필요로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이루어져 가상의 공간에서 생성·유통되는 전자 기록을 관리·보존하는 것은 아직도 완벽한 방책을 마련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 있다.²¹⁾ 이러한 연유로 인해 기록보존기관의 주요 관심 대상은 시기 및 장소를 불문하고 문자화된 기록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구술기록은 주로 녹음 및 음악테이프와 같은 음성기록 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왔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문자화된 기록물 관리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고비용이 소요되는 구술기록의 생산에 앞서 산적해 있는 문자화된

20) Jean-Pierre Wallot &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o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 365.

21) 전자기록의 관리 및 보존과 관련된 딜레마에 대해서는 김명훈 외, 『전자기록 관리의 이해』,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 2003, 2장 및 4장을 참조.

기록의 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기록에 대한 실증주의의 뿌리 깊은 관념 역시 구술기록 생산을 중시치 않게 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근대 기록관리의 출발점으로 삼는 프랑스혁명 이후 문자화된 기록은 실증주의 사조와 연계되어 과거의 사실 내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식되어 왔다. 19세기 정치·외교·군사적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실증주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원문비평(Textual Criticism)에 근거한 신뢰할만한 문서에 역사연구가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다. 이의 영향으로 전통적으로 기록학 영역에서의 기록은 서면 형태의 문서로 인식되어왔다. 즉 개인 내지 단체의 활동 과정 중 생성된 활동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기록에 부여했고, 이러한 영향으로 기록학 영역에서는 이러한 증거를 온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주력하게 되었다.²²⁾

또한 20세기 이후 관료제의 보편화 속에 공식적인 업무처리는 구두가 아닌 문자로 작성된 기록을 통해 수행되게 되었다.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조직체계에서 업무 처리의 비합리성을 배제하고, 역할 분업화에 따른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로 기록에 기반을 둔 업무처리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근대 이후 기록관리의 모토가 되는 실증주의와 문서주의의 심화 속에 문서화된 기록을 행위 내지 활동에 관한 업무적·법적 증거로서 파악하는 경향이 더욱 고착화되었고, 구술은 자연스럽게 기록관리의 우선적 관심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불완전하면서도 주관적

22) Jean-Pierre Wallot &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o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 365.

인 기억에 입각한 구술은 기록으로 인정키 어려우며, 행위 과정 속의 자연스러운 축적물이 아닌 면담자의 의도 및 구술채록의 의도가 반영된 목적의식적 산물이기 때문이다.²³⁾

하지만 구술채록을 반대하는 논지는 무엇보다 기록보존기관 및 기록전문직의 중립성 문제와 관련된다. 기록학 영역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는 가치 내지 의미의 중립성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은 인간의 행위 내역이 있는 그대로 투영된 산물이며, 따라서 기록전문직의 사명은 있는 그대로의 행위내역을 기록화 된 그대로 관리·보존해 전승하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 기준 및 의미 판단은 주어진 시기 및 사회의 사고 체계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기록전문직의 기록에 대한 가치 내지 의미의 부여 역시 당대의 사회적 가치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발생한 그대로의 행위 내역을 주관성을 배제하고 생성된 당시 그대로 관리·보존해 전승한다는 중립성이 기록학 영역에서는 시대를 불문하고 철칙으로 자리해왔다.

이러한 중립성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재해석은 영국의 기록학자인 Jenkinson의 논지로 대변할 수 있다. 생산목적의 본원성을 강조하는 Jenkinson의 이론적 기반은 기록의 본질에 대한 르네상스적 회귀에 그 출발점을 둔다. 고대 로마법에 근거한 관념인 ‘영속적 기억’(Perpetual Memory)과 ‘공적 신뢰성’(Public Faith)으로 대표되는 기록의 본질은 가치의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영속적 기억은 기록에 수록된 내용의 변동 없는 지속적 사실성을 의미하며, 공적 신뢰성은 기록의 사회적 기능에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두 개념은 당시 로마법을 기반으로 한 기록보존제도에

23) Jean-Pierre Wallor &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o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 366.

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인 기록보존소에 보관된 기록은 지속적 사실성 및 내용의 공신력을 국가로부터 보증 받으며, 이때 국가기관에 보관되지 않은 부수적 기록과의 이분법적 사고가 성립된다. 즉 일회성 기록 내지 사본 등을 제외한 보존 기록은 위의 두 관념에 기초하여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며, 따라서 특정 가치관 내지 주관성이 투영된 가치판단 행위는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된다. 각각의 기록에 대한 특정 기준의 가치판단은 내용적 사실성과 공신력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생산목적 본연의 고유성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다.²⁴⁾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구술채록은 기록보존기관 및 기록전문직의 중립성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 인간의 행위 내역을 투영한 기록을 주관이나 가치의 개입 없이 관리·보존해 전승한다는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구술채록이라는 것은 면담자의 개인적 견해나 가치 판단, 주관 등을 기반으로 기록을 새롭게 생성시키는 행위라고 볼 때, 20세기까지 기록보존기관 및 기록전문직의 철칙으로 여겨왔던 중립자로서의 역할과 배치될 수밖에 없다.²⁵⁾ 이를 염두에 둘 때 구술채록은 구술의 내용과 성격에 주관이나 가치 판단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기록보존기관 및 기록전문직은 기록을 생산할 수도 생산해서도 안된다는 것이 중립성을 기치로 내건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견해이다.²⁶⁾

24) 이상의 논지는 김명훈,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선별방식 및 가치범주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한국기록학회, 2002, pp. 23~24에서 재인용.

25) Ellen D. Swain, “Oral History in the Archives: Its Documentary Ro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American Archivist* 66(Spring/Summer), 2003, p. 144.

26)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H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 149.

하지만 근래 들어 기록보존기관에서의 구술채록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지들이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기록보존기관에서의 구술채록 찬성 논지들은 주로 현존 기록의 결락부분 보완 차원에서 구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당대 제도 속의 공식적인 행위들만을 남기기 쉬우며, 제도권 밖의 비공식적인 일상 행위들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최근의 통신 및 컴퓨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전의 문자화된 종이에 기반을 두었던 의사소통들이 전화나 통신, 직접적인 구두로 행해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구술은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채울 수 없는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²⁷⁾ 또한 구술은 살아 있는 기억에 기반을 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자 과거 기억의 파편화된 조각들을 남기는 작업이다. 따라서 구술채록은 파편화된 기록의 빈틈을 매워주는 의미 있는 작업이며, 구술과 기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게 된다. 구술채록은 하나의 완벽한 과거 사실을 복원시키는 것이 아닌, 이러한 파편화된 조각들을 모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²⁸⁾

이러한 논지들은 구술채록을 기록보존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영역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 의미 및 역할 정립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이들 논지들은 결락기록의 보완 측면에 한정해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 기존의 구술사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어 온

27) Jean-Pierre Wallot & Normand Fortier, "Archival Science and Oral Sources", *The Oral History Reader*, Robert Perks, Alistair Thomson eds.,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p. 367~375.

28) Francois Rochat, "Psychology, Archives, and Memory", *1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Archives*, 2004, pp. 2~4. <http://www.wien2004.ica.org/imagesUpload/pres_356_ROCHAT_C-USA-BEN04_EN.pdf>

논지와 큰 차별성을 지니지 않는다. 기록학은 행위에 대한 증거를 맥락(Context)을 확보하며 생성·관리·보존케 함과 아울러 현재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평가(Appraisal)를 통해 형성케 하는 학문 영역이라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학 영역 고유의 구술채록 의미 및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록학의 본성과 연계시켜 논증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기록의 맥락 및 평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채록 필요성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4. 기록학과 구술 필요성

1) 구술과 기록 그리고 맥락

전통적으로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은 ‘물리적 형태나 매체에 상관없이, 개인 내지 조직의 행위과정 중에 생성·접수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보로서 의미를 지닌 대상’으로 정의되어 왔다. 개인 내지 조직은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들을 통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개인 내지 조직의 행위가 반영된 대상은 종이문서 이건 그림이나 사진이건 또는 의미 있는 물품이거나 컴퓨터로 생성된 바이너리 코드이건 모두 기록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은 개인 내지 조직의 행위가 수행된 내역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록은 개인 내지 조직의 행위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 및 정보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산발적·우연적으로 남겨진 대상을 기반으로 과거를 복원하는 활동이 아닌, 현재의 사회체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총체적인 행위내역을 기록을 통해 남기는 고도의 합목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 및 정보로서 의미를 지니는 점에서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기록 역시 특정 매체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기재된다는 점에서 도서와 같은 관련 대상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또한 이들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기록의 유일성이다. 가령 도서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판본이 다수 존재하지만, 특정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은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다. 물론 최근의 복사기기의 발달로 동일 사본이 다수 복제될 수는 있지만, 기록학에서는 최초로 작성된 원본만을 유일본으로 간주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흔적으로 삼는다. 똑같은 인간이 두 명일 수 없듯이 인간 각자 각자가 수행한 행위는 세상에 하나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반영한 기록은 유일성을 지니며 인간 행위에 대한 사실적 증거로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록은 과거에 대한 실증적 증거자료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기록이 지닌 또 하나의 특성은 기록 간의 상호연계성이다. 인간의 행위는 원인과 과정,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위를 반영한 기록 역시 일련의 인과관계를 형성하며 해당 행위에 관한 기록들 간의 상호연계성이 생성되게 된다. 이로 인해 기록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건별로는 본래의 의미 파악이 어려우며, 상호연계성 속에 해당 기록에 대한 이해성이 보다 잘 확보될 수 있다. 전후의 인과관계를 알아야 해당 사안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기록이 지닌 이러한 유일성과 상호연계성은 기록의 고유 특성으로 자리해왔다. 기록이 지닌 유일성은 개인 및 조직의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권

위를 부여해주며, 기록 간의 상호연계성은 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일련의 인과관계 속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위의 사실 내역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한다. 이를 통해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한 인간의 행위를 계획적으로 남겨 현재의 사회상을 전승하는 가치중립적 활동으로 기록학의 정체성을 확립케 해준다.

유일성과 상호연계성의 토대 위에 인간의 다원적인 행위를 관리·보존하기 위해 기록학 영역에서 강조해 온 것은 기록의 맥락(Context)이다. 기록 속에 기재된 내용(Content) 및 기록이 조직화되고 상호 연계된 방식을 의미하는 구조(Structure)와 함께 기록의 3대 요소를 형성하는 맥락은, 기록이 생성·관리·활용된 조직적·기능적 환경 및 기타 제반 환경을 의미한다.²⁹⁾ 기록은 인간의 행위내역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연원 및 배경에서 왜 생성되었는가란 맥락의 확보 없이는 해당 기록의 내용 파악이 곤란하다. 맥락이 확보되어야만 누가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왜 무엇을 수행했는지를 밝혀줌으로써 기록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이러한 맥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종이기록의 경우 기록의 내용과 구조, 맥락은 종이라는 물리적 매체 위에 기재되어 있어 이들 세 요소의 확보가 용이하였다. 하지만 전자기록은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이루어져 내용과 구조, 맥락이 각기 분리되어 존재한다. 또한 전자기록이 생성되는 업무환경은 더욱 더 다원화·복잡화되어 전자기록이 생성된 맥락의 확보가 예전처럼 용이치 않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기록의 맥락 확보가 기록관리 행위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하게 된다.³⁰⁾

29) Richard Pearce-Moses,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Exposure Draft), Chicago: SAA, 2004, p. 71.

이러한 기록의 맥락을 원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록학 영역에서는 출처주의(Principle of Provenance)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Respect for Original Order)을 적용해왔다. 출처주의는 기록이 생성된 연원인 출처를 분류상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 조직 내지 단체, 개인 등에 관련된 기록을 동일 생산자의 조직 및 기능구조와 연동시켜 분류하는 원리를 말한다. 기록은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록의 생산자는 곧 출처로 등치되며, 이러한 출처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지니게 된다.

우선 기록의 전체적인 통합성을 창출하는 논리적 구심점이 된다. 기록은 생산자의 행위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생산·축적된 산물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를 형성하게 된다. 즉 생산자의 조직 및 기능구조와 연동된 기록간의 유기적 연계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단일 생산자를 정점으로 전체 기록의 통합성이 생성되게 된다. 다음으로 기록 생산맥락과의 연계이다. 기록은 생산자의 행위 과정 중에 생성된다는 점에서 행위를 둘러싼 맥락을 함유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자와 기록을 연계시키는 논리는 기록이 생성된 배경 내지 연원과 같은 맥락의 확보를 원천적으로 가능케 해준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단일 생산자를 중심으로 한 출처주의는 기록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 위에 기록의 맥락을 확보하는 기록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자리해왔다.³¹⁾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기록의 생성과 관련된 행위과정 그대로의 질서가 우선적으로 기록 분류·정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기록이 생성된 당시의 원래 질서를 인위적으로 변

30)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김명훈,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1, 한국기록학회, 2005, pp. 94~99를 참조.

31) 출처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 기록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 2003, pp. 1~30을 참조.

경해서는 안되는 고유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기록의 생성 과정에 따른 기록의 본원적 성격을 해명하는 중심고리를 제공해준다.³²⁾ 이러한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행위의 본원적인 인과 관계를 기록의 분류·정리에 투영시킴으로써 기록이 생성된 맥락을 원천적으로 확보해 주며, 종국적으로 출처주의와 결합하여 기록의 전체적인 분류체계를 완성해주게 된다.³³⁾

이상과 같이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는 인간의 행위내역을 기록이 지닌 유일성 및 상호연계성을 기반으로 관리·보존해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사회체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간의 총체적인 행위내역을 기록을 통해 증거로서 남기는 고도의 계획적인 활동을 수행해왔다. 여기서 핵심적인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기록의 맥락으로, 출처주의 및 원질서 존중의 원칙 적용을 통한 맥락의 원천적인 확보 속에 기록을 과거의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기록의 맥락 확보에는 일정 한계 역시 지니며, 여기서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채록 필요성이 도출된다. 기록 맥락 확보를 위한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 적용은 최선의 방식이 아닌 대량의 기록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먼저 기록의 맥락 확보를 위한 출처주의 적용은 일정 조직 및 기능구조 하에서 생성된 기록의 기본적인 맥락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 생성 모태로서의 조직운영 논리와 출처주의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Organization)은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일

32) Fredric M. Miller,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진리탐구, 서울, 2002, pp. 19~21.

33) 김명훈, 『출처주의와 현대 기록관리』,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서울, 2003, pp. 32~33.

정 구조 및 구성원을 지닌 사회단위로 정의된다.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부서들에 일정 권한 및 업무를 부여해 전업화 시키며, 이러한 부서들은 명령의 통일성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정점으로 구조화된다. 이러한 구조화는 보통 계층제로 구현된다. 계층제는 ‘통솔의 범위’에 따른 귀결이다. 즉 1인의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업무기능 및 부하의 수는 한정되며, 따라서 여러 단계의 위계를 설정해 권한 및 책임의 배분뿐만 아니라 명령 및 의사소통의 통로로 활용하는 것이 계층제의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다.

관료제는 계층제라는 단독제적 구성을 통해 형성된 산물이다. 이러한 관료제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명확한 분업체제이다. 동일 종류에 속하는 모든 직능은 단일 부서에 귀속시킴과 아울러, 부서 간 고유 직능 및 책임에는 엄격한 경계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업무의 전업화를 지향케 한다. 또한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제를 통해 위계별 권한 및 업무를 배정하고 명령 및 감독의 상하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토대 위에 행해지는 모든 공식적 업무처리는 기록을 통해 수행되며, 기록은 위계화 된 계층 간의 의사소통 및 업무처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조직운영 패턴에서 출처주의의 본원적 논리가 도출된다. 우선 조직은 단일 목표 달성을 위해 구조화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생산된 기록 역시 단일 출처를 중심으로 한 통합성 및 상호유기성이 형성된다. 또한 최고위층을 정점으로 한 조직 내의 위계화 된 계층구조는 단일 출처를 기반으로 한 기록의 계층적 질서를 창출시킨다. 아울러 특정 업무기능의 전업화에 따른 부서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은 생산자와 기록간의 일대일 연계관계를 형성시키게 되며, 바로 여기서 단일 출처의 조직

및 기능구조와 기록 구조를 연계시키는 출처주의 논리는 설득력을 얻게 된다.³⁴⁾

바로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기록의 분류에 출처주의를 적용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기록의 맥락을 원천적으로 확보하는 도구로 삼아왔다. 아울러 조직구조의 변화가 빈번하며 업무수행 패턴이 매우 복잡한 전자환경에서는 사전적인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한 출처주의 적용을 통해 기록의 생산맥락을 확보하고 있다.³⁵⁾ 하지만 이러한 출처주의는 기록 간의 상호연계성을 근거로 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기록들의 맥락 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최소한의 방안으로, 기록의 생성과 관련된 모든 맥락을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즉 출처주의는 조직 및 기능체계와 기록의 분류체계를 연동시킴으로써 조직이 운영되고 업무가 수행된 외형적인 맥락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지만, 보다 근저에 있는 행위 및 사건 내면에 숨겨진 근원적인 맥락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출처주의는 문서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 조직운영 환경에서 매일매일 생성되는 방대한 기록들을 분류를 통해 용이하게 생산맥락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주지만, 행위 및 사건 이면에 놓인 문자화된 기록에는 미처 작성치 못하거나 남길 수 없었던 생성 당시의 보다 심층적인 맥락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원질서 존중의 원칙 역시 그 적용에는 제약이 따른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행위의 본원적인 인과관계를 기록의 분류·정리에 투영시킴으로써 기록이 생성된 맥락

34) 이하의 내용은 김명훈, 「공공기록물의 분류 원리: 출처주의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록보존』 16, 정부기록보존소, 2003, pp. 216~217을 재인용.

35) 전자환경에서의 출처에 대한 기능적 해석 및 적용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명훈, 『전자기록 평가론』, 진리탐구, 서울, 2009, pp. 180~183, 195~203을 참조.

을 원천적으로 확보케 하는 방편이지만, 해당 사안과 관련된 원래의 기록 생성 순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이관된 경우에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³⁶⁾ 따라서 무질서하거나 파편적으로 이관된 기록의 경우에는 원질서 존중의 원칙 적용이 무의미하거나 적용한다고 해도 본원적인 맥락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채록은 의미를 지닌다. 구술은 기록 속에 담지 못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해당 행위 내지 사안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채록함으로써, 공식화된 문서의 서식 틀 속에는 남지 않는 또한 문자화된 표현의 행간에 숨겨져 있는 행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채록은 기록 이면에 드러나지 않는 심층적인 행위의 배경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거나 특정 사안의 세부적인 내용 보완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록 속에 수록된 내용을 검증하거나 사실내역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 하에 구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이루어진 전자기록의 경우 수많은 행위들이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것은 아니며 맥락 정보 역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³⁷⁾ 또한 최근의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 속에 개인 및

36) Fredric M. Miller,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조경구 역, 진리탐구, 서울, 2002, pp. 45~46.

37) David Bearman, "New Models for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Evidence: Strategies for Managing Records in Contemporary Organisations*,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1994, pp. 284~285.

조직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 속에서 행위하며 이 과정 중에 기록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록은 예전과 같은 정적인 고정체가 아닌 항시 ‘형성되어 가는’(becoming) 존재로 파악되며, 기록과 이를 둘러싼 맥락과의 관계는 다원적이며 역동적인 형태를 지니게 된다.³⁸⁾ 이러한 면에서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성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을 원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록관리상의 핵심 사안이 된다.

이와 같은 점은 Ketelaar가 제안한 ‘Archiv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Archiving’은 기록을 기록보존소에 모으는, 기록의 생산 이후 수행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기록의 생산 이후가 아닌 기록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rchiving에 선행하는 ‘Archivization’이란 개념 역시 존재한다. 이는 9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Bernard Stiegler가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기록의 획득에 앞선 기록의 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국면을 포함하는 의미이지만, Archivization에 선행하는 또 다른 ‘사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바로 ‘Archivalization’으로, Archiving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사회적 문화적 제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의식적 내지 무의식적인 선택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즉 모든 기록은 기록에 수록된 내용에 앞서 이러한 내용이 생성되게 된 다양한 맥락을 함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Archivalization은 Archiving에 앞서 기록의 생산 연원이 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맥락으로 파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⁹⁾

38) Sue McKemmish, “Are Records Ever Actual?”,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Sue McKemmish & Michael Piggott ed., Clayton: Ancora Press in association with Australian Archives, 1994, p. 200.

39) Eric Ketelaar,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2),

이는 곧 기록관리 행위는 기록을 사후적인 결과물로 파악해 현재 그대로를 보관하는 역사적 사료의 보관자가 아닌, 기록의 생성 연원이 되는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제반 맥락을 반영한 기억을 창출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흔적을 다양한 맥락과 함께 획득해 행위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증거로서 기록으로 생성·유지시키는 것이 기록관리의 기본 과제가 된다.⁴⁰⁾ 바로 여기서 구술채록은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한, 기록을 둘러싼 보다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구술은 기록학의 본원적 사명인 기록의 맥락 확보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맥락 확보의 기본 방편인 출처주의 및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기록의 생성과 관련된 모든 맥락을 완벽하게 확보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구술은 행위 및 사건 이면에 놓인, 문자화된 기록에는 작성치 못하거나 미처 남길 수 없었던 생성 당시의 보다 심층적인 맥락을 확보케 해준다. 특히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 하에 기록의 맥락이 더욱 복잡화된 상황에서, 기록을 둘러싼 다원적이면서도 복잡한 보다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2001, pp. 132-133; "Archivistics Research Saving the Profession", *American Archivist* 63(Fall/Winter), 2000, pp. 328-329.

40) Sue McKemmish, "Traces: Document, Record, Archive, Archive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2005, p. 9.

2) 구술과 기록 그리고 평가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채록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는 기록의 평가(Appraisal) 측면과 연관지어 고려해 수 있다. 기록의 평가는 기록이 지닌 가치를 기준으로 영구보존 내지 기타 기록의 처리에 대한 근거로 제공하는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기록 중 어떠한 기록을 평가해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이론과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인간의 행위 중 기록이 생성되고 기록은 인간의 행위를 반영한 거울과 같다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의미 있는 대상을 선별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임무를 평가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기록학 영역에서의 평가에 관한 이론들은 모두 현재의 사회 모습을 기록을 통해 남겨야 한다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란 문제와 관련하여 체계화된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Life-Cycle)과 결합된 가치평가이다. 기록의 가치 개념은 항구적 보존의 근거를 해당 기록에 내재하는 고유의 가치에서 구하는 것이고, 라이프사이클은 ‘현용-준현용-비현용’ 단계를 거치며 비현용 단계에서 기록의 새로운 가치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가치의 순환논리이다. 이러한 가치평가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의 가치 변화와 연동하여 현용과 준현용 단계 사이에서는 기록의 생산 목적에 기반을 둔 가치평가를, 그리고 생산 본래의 목적이 소멸된 준현용과 비현용 단계 사이에서는 역사적·문화적 가치 위주로 기록을 평가하여 선별하게 된다.⁴¹⁾ 하지만 개별

41) 미국 Schellenberg에 의해 체계화된 라이프사이클과 결합된 가치평가 방식의 형성배경에 대해서는 김명훈, 「공공기록물의 평가체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선

기록 속에 기재된 내용상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하는 가치평가 방식은 기록을 통한 사회상의 형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즉 다원화된 사회 환경에서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직이 운영되는 메커니즘의 복잡화 속에, 내용적 가치를 근거로 한 개별 기록의 선별은 파편화된 사회 모습만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이다.⁴²⁾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우선하여, 기록이 생성된 맥락상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평가(Functional Appraisal)가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전자기록이 지닌 특성을 반영한 귀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개별 기록을 사후적으로 내용상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며 또한 중요 기록의 선별 측면에서도 무의미하다는데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 이에 기능평가에서는 개별 기록의 내용에 앞서 기록이 생성된 기능상의 중요도를 기록 생성 이전의 업무기능 분석을 통해 판단하며, 이를 통해 기록이 생성된 연원으로서의 맥락상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중요 기록을 선별하게 된다.⁴³⁾ 그러나 기능평가는 업무기능 분석에 토대를 둔 관계상 기록이 지닌 현용적 가치 선별에는 강점을 지니지만, 역으로 사회상 형성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선별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⁴⁴⁾

별 방식 및 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한국기록학회, 2002, pp. 21~22를 참조. 아울러 가치평가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Theodore R. Schellenberg, 「현대 공공기록의 평가」, 『기록학의 평가론』, 오향녕 역, 진리탐구, 서울, 2005, pp. 29~47을 참조.

42) 김명훈, 『전자기록 평가론』, 진리탐구, 서울, 2009, pp. 184~185.

43) 전자기록 환경 하의 기능평가 논리 및 방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김명훈,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능평가 프로세스 분석」, 『정보관리연구』 39(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8을 참조.

44) Stephen Twigg, "The Appraisal of Electronic Records", *Manual on Appraisal(Draft): A*

이러한 기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능평가와는 별도로 고안된 것이 영구보존 대상 선별을 위한 평가전략이다.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에서 국가 및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고 복잡한 메커니즘 하에 영위되고 있다. 문서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관료제의 보편화와 함께 인간의 사회적인 활동상은 대부분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기록의 선별로는 다원화되고 복잡화된 사회 속에 기록의 맥락 파악이 어려우며 아울러 파편화된 내용 전달로 인해 전체적인 사회상의 재구축이 불가능하게 된다.⁴⁵⁾ 따라서 방대한 양의 기록 가운데 당대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표를 정립함과 아울러 평가에 대한 체계적·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기록 평가에서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형성 측면을 강조하는 원인은 포스트모더니즘 및 이와 연계된 기억 담론에서 찾을 수 있다. 기록학 영역에서 기억 담론은 종전 모더니즘 시대를 넘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여 진행된 사조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지배적 담론으로서의 역사가 그 지위를 상실하는 동안, 기억 담론이 과거를 파악하는 사조로서 부각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록을 단지 역사 사료로서 간주하고 역사가의 주관적 사고에 따라 과거를 재구성하는 차원을 넘어, 기록을 통해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서의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형성시킨다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에 대한 사고 역시 목적의식적으로 한

Practical Guide for the Daily Problems of Appraising and Selecting Documents, ICA/CAP, 2005, p. 21.

45) Philip C. Bantin, "Strategies for Managing Electronic Records: A New Archival Paradigm? An Affirmation of Our Archival Traditions?", *Archival Issues*, 1999, pp. 11~12. <<http://www.indiana.edu/~libarch/ER/macpaper12.pdf>>

사회 및 시대의 기억을 형성하는 방편이라는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⁴⁶⁾

포스트모더니즘 사고에서 기록은 관리되어야 할 객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기록의 내용에 있는 맥락에 중점을 두며, 또한 과거처럼 기록이 지닌 중립성 및 객관성에 의심을 품고 의식적인 산물로 파악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록을 예전처럼 과거 사회를 있는 그대로 제시해주는 객관적 산물로 파악치 않으며, 평가 역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목적의식적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기록학은 과거처럼 역사 연구를 뒷받침하거나 기타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록을 관리·보존하는 역할을 넘어, 집단기억·국가적 진보·민주정치·사회적 필요의 충족에 기여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과 기억 담론은 영구보존 대상의 선별 사명을 담당하는 기록보존기관의 역할을 재설정해준다. 기록은 일정 사회 환경 속에서의 행위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행위의 사실적 증거를 담은 부산물로서의 의미를 넘어, 총체적 사회 환경 속에서 잠재적인 집단기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기록은 개인의 사회생활 속에서 남겨진 기억을 사회의 기억으로 구조화시키며 유지하는 매개물임을 염두에 둘 때, 기록보존기관의 핵심적 역할은 활동의 결과물을 사후에 선별하여 보관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어 집단 기억 형성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영구보존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된다.⁴⁷⁾

46) 기록학 영역에서의 기억 담론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원종관,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pp. 21~27을 참조.

이처럼 기록학 영역에서는 평가를 통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의미 있는 대상을 선별해 후대에 전승하는 사명을 담당해왔다. 어떠한 기록을 선별할 것인가의 방향은 개별 기록의 내용에서 내용의 근거를 형성하는 맥락으로 이전해 왔으며, 최근의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아 기록을 통해 총체적인 사회현상으로서의 집단기억을 형성시킨다는 적극적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기록학은 현재 생성되고 있는 수많은 기록을 통해 현재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남기는 당대의 시대적 과업을 맡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록학이 담당해 온 이러한 과업에는 일정 한계를 지니며, 여기서 구술채록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결락 기록의 보완 측면에서 구술채록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실 기록학의 평가는 현실적인 차선의 행위라는 점을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가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기록 중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관리 및 보존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해 남겨야 하는 딜레마를 향시 지니고 있다. 어느 시대 및 사회를 막론하고 기록을 관리·보존하는데 충분한 가용자원을 투입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학에서는 최소한의 기록으로 최대한의 사회상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을 모토로 삼지만, 평가를 통해 당대의 완벽한 사회상을 기록으로 남기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따라서 기록보존기관 내의 소장기록군에는 일반적으로 결락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내용적 가치를 기준으로 개별 기록들을 평가해 온 그동안의 평가 관행은 파편화된 사회적 단

47) 이상의 논지는 김명훈, 『전자기록 평가론』, 진리탐구, 서울, 2009, pp. 266~267에서 재인용.

면만을 남겨왔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채록은 문자화된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결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⁴⁸⁾ 소장기록군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내용상의 결락된 부분을 기록전문직의 소명 의식을 기반으로 관련자의 기억을 통해 메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⁴⁹⁾

구술채록이 기록학 영역의 평가와 관련하여 보다 의미를 지니는 부문은 현재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남기는 당대의 시대적 과업과 관련된다. 기실 그동안 기록학 영역에서 전개되어 온 평가 이론 및 방법론들은 주로 공공기관의 기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평가란 본디 방대한 양의 기록 처리에 직면하여 개발되었고, 또 정부는 한 국가 내 최대 규모의 조직을 형성하며 방대한 양의 기록을 생성시킨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어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록을 대상으로 평가해 후대에 전승하는 행위는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형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부의 행위만이 당대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부의 효율적 운영에 전제가 되는 거버넌스 추이 속에, 공공영역은 기관 운영 상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상호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의무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내 상당수의 정치적·사회적 행위들은 국가와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기서 기록은 국민과의 의사소통 및 설명책임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도구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을

48) Bruce Bruemmer, "Access to Oral History: A National Agenda", *American Archivist* 54(Fall), 1991, p. 496; Donald Ritchie, *Doing Oral History*, New York: Twayne, 1995, p. 132.

49)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H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 153.

통해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평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활동내역을 수록한 공공기록으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단면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정부에서 수행한 특정 정책이 있다면 여기에는 민간단체 및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있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록의 체계적인 이관을 담보하는 평가만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록만 남게 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기록 역시 남겨질 때만 정부 정책에 대한 전체상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⁰⁾

바로 여기서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 형성을 위한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 필요성이 도출된다. 기록학이 인간의 행위에 관한 현재의 총체상을 기록을 통해 남기는 시대적 과업을 맡고 있다면,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말을 통해 남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구술은 사회의 역사를 기록화 시키는데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⁵¹⁾ 구술은 정부의 통치 및 행정 행위 이면에 내재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비공식적인 사회상, 공공기록이 전하지 않는 다양한 삶의 모습 등을 당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기억을 통해 남겨, 공식적인 문서가 전달하지 못하는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여백을 메울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구술은 기존의 평가방식을 통해 해결치 못한 기억의 형성 차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기록학의

50) 김명훈, 『전자기록 평가론』, 진리탐구, 서울, 2009, pp. 345~346.

51) Dale C. Mayer, "The New Social History: Implications for Archivists", *American Archivist* 48(Fall), 1985, p. 339.

평가는 현재의 사회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과업으로 최소한의 기록을 통해 최대한의 사회상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을 모토로 삼지만, 당대의 완벽한 사회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은 문자화된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결락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 다양한 삶의 기억들을 말을 통해 남길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준다.

5. 맺음말

20세기 중반 이후 기존의 문자화된 기록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녹음 및 녹화기기의 발전과 연동하여 기록학 영역에서도 구술이 하나의 기록화 방식으로 도입되었지만, 최근까지도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 정체성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학 영역에서 구술채록이 지닌 의미와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기록의 맥락 및 평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술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해 보았다.

기록학이 ‘현재의 모습을 기록을 통해 남기는 과업’이라면, 기록학적 관점에서의 구술채록은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기 위한 사료의 생성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록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맥락성을 지닌 증거 및 정보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당대 사회상 및 집단기억을 기록을 통해 후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채록은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지 않는 영역에 대한 기

록 생성 내지 결락부분을 보완하는 의미와 함께, 기록 속의 보다 근원적인 맥락을 확보하며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의 형성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은 행위 및 사건 이면에 놓인, 문자화된 기록에는 작성치 못하거나 미처 남길 수 없었던 생성 당시의 보다 심층적인 맥락을 확보케 해주며, 더불어 문자화된 기록으로는 남지 않는 총체적 사회 내 다양한 삶의 기억들을 말을 통해 남길 수 있게 해줌으로써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기억 형성에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해준다.

물론 본고에서 제시한 논지로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이 지닌 의미와 역할 정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의 심층적인 맥락 확보 및 당대 사회상 내지 집단기억 형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는 기록학 영역에서의 구술 필요성의 일측면에 불과하며, 보다 다양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기록학의 고유 사명에 입각한 구술의 의미 및 역할 정립에 대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여기서는 몇 가지 추후의 고려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또 하나의 기록 유형으로서의 ‘말’이 지닌 속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근대 이후 사회 구성 및 사회 조직의 다원화·복잡화와 맞물려 문자화된 기록 형식의 의사소통이 일반화 되었고, 이러한 문자화된 기록의 보존은 시간 및 장소를 초월한 정보의 공유 및 소통을 촉진시켰다.⁵²⁾ 하지만 녹음 및 녹화기술의 진전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말의 보존 및 공유를 가능케 해주었고, 이는 최근 들어 구술이 새로운 기록 형식으로

52) Kenneth E. Foote, “To Remember and Forget: Archives, Memory, and Culture”, *American Archivist* 53(Summer), 1990, p. 379.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구술이 기존의 문자화된 기록에 병행하는 기록 형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문자와는 상이한 말이 지닌 속성 및 기능상의 특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록학 관점에서의 구술상의 제문제 역시 집고 넘어가야 한다. 구술은 과거의 사실을 경험자의 말을 통해 남긴다는 점에서 문자화된 기록이 전달치 못한 사항들을 확보할 수 있지만, 구술자의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된다. 구술은 과거 실제 사건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닌, 구술자의 기억을 통해 여과되어 재해석된 것이기 때문이다.⁵³⁾ 기록학 관점에서의 구술은 기존의 문자화된 기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라는 견해⁵⁴⁾처럼, 기존의 소장기록에서 전하는 내용과 구술 내용 간의 면밀한 비교·검토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기록학 관점에서의 구술은 현 소장기록의 결락을 단순히 보완해주거나 추가해 주는 것이 아닌, 일련의 실제 사건 내지 행위에 대한 최초의 해석을 채록하는 구술자와의 ‘공동 창조물’임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⁵⁵⁾

이의 연장선상에서 구술이 지닌 주관성 및 목적성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하다. 구술은 구술자 개인의 경험 및 이를 토대로 한 기억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관성은 그동안 구술이 객관적 증거자료로서 냉혹한 비판을 받아 온 영역 중 하나였다. 아울러 구술은 면담자의 의도를 전제로 두고 구술자와의 대

53) William W. Moss, "Oral History",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James Gregory Bradsher ed., London: Mansell Publishing Limited, 1988, p. 149.

54) Donald Swain, "Problems for Practitioners of Oral History", *American Archivist* 28(January), 1965, pp. 63~64.

55) Saul Benison, "Reflections on Oral History", *American Archivist* 28(January), 1965, p. 73.

화를 통해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목적의식적 산물로, 최종적으로 면담자가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술의 질문 및 면담이 이루어지기 쉽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술자의 성향·성격·특성·해당 사건 내지 이슈에 대한 태도·구술사업의 기획 의도·목적·면담자의 성향·이력·학문적 특성 등의 제반 정보를 구술채록 결과물에 대한 중요한 맥락 내지 배경정보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록학 관점에서의 구술은 당대의 사실내역 내지 경험, 기억을 정확한 맥락 속에 객관적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임을 감안할 때, 구술상의 객관성·불편부당성·공정성 및 가치중립성을 지녀야 한다. 마치 소설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시점이 아닌 관찰자시점을 지녀야 하며, 주인공 시각에서의 편향적 내용 전개가 아닌 객관적인 나레이터 입장에서의 증언 채록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것이 오랜동안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해 온 기록학의 전통을 계승하며 구술의 정체성을 정립시키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s and Roles of Or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Archival Science

Kim, Myoung-Hun

With progress of the sound and moving picture recording technology, sound and moving picture have been a tool for evidence and memory on human activities. Accordingly, in archival science the importance of oral history as a record is disseminating and the production of oral record is carried out actively. But for producing oral record in archival institutions, the identity of oral record need to be established more firmly.

Archival science is the task which delivers the current appearance of life to future through records. Therefore producing oral record in archival science must have unique characters. And archival science is the task which is building current society shape and collective memory. Therefore the identity of oral record have to be established more firmly.

This article intends to explore the meaning and role of oral record from a perspective of archival science. All these days, the theories and methodologies had been developed focusing on written records mainly in the deep-rooted influence of positivism. But as it is enabled the creation and preservation of records through 'speech', it need to be

noted that oral record is the very core of tool for delivering the current society shape and collective memory. Therefore this article will intend to explore the meaning and role of oral record as a part of effor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oral record.

Key words: Oral Record, Oral History, Record, Record Management, Context, Appraisal